

##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 중국 해남성에서 개최 생명존중으로 불국정토 이뤄가자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국 해남성 산야에서 제1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개막식, 학술강연회, 3국 대표단 만찬, 3국 교류위원회 회의, 해남성 남산사 성지순례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1995년부터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립, 3국 불교의 유대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개막식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소속 한국불교대표단 100여 명, 중국불교대표단(단장 전인스님) 200여 명, 일본불교대표단(단장 야스다 에인스님) 57명 등 400여 명의 스님과 중국 종교성 왕작안 국장, 해남성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봉행되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막식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인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불교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을 따라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곳이 모든 중생과 상호 연관된 인드라의 관계임을 성찰하여, 모두가 바라는 불국토의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불교계는 사회와 인류에게 세계일화의 공동운명체로서의 동체대비 의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막식 직후에는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가 진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혜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학성스님,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포유이신스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대회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나라별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국불교 심리치료원 원장 서광스님은 "불교심리치유의 확대와 세계화를 위한 모색"이란 주제발표에서 ▲자연재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 증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심리치유 방법 ▲불교계의 활동현황

▲불교계의 치유활동 확대 발전 방향 등을 살폈다. 스님은 "자연재해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고 방지하고

극복해야 하는가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의 심리치유 확대 방안으로 ▲영적 차원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

및 심화 ▲개발프로그램 국제 공유 등을 제안했다.

국제학술강연회에 이어 한중일 3국은 자연재해와 고통으로 얼룩진 인류에게 내재된 불성을 회복하고 불국토를 이뤄 가는데 불교가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결의했다.

한편 11월 27일 본 대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하이난도 남단에 자리한 남산사를 방문해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의 상축의식으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은 평화기원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우리 불교도들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표단은 11월 24일 일제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가 묻힌 천인강을 방문해 고혼들을 위로하는 등 하이난도 주요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글: 총무원 사회부



##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교류위원회 4분기 회의 개최

▼ 사회부 권대식 국제팀장의 보고와 인건 설명 후, 교류위원들이 열린 토론을 하고 있다.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보화스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557년 4분기 국제교류위원회회의를 사회부장 보화스님, 포교부장 송묵스님, 조계종 국제특보 진월스님,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국제불교학교 처장 지정스님,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천조스님 등 교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회의는 2013년 국제팀 주요 종무와 2014년 주요 국제행사 일정 및 예산 공유로 나눠 진행되었다.

2013년 주요 종무로는 외국인 스님에 대한 출입국 관리 업무,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한 초청 행사, 불교포럼 중국 선종사찰 참배와 템플스테이 해외 홍보를 위한 파리대학 학생 초청 행사, 다양한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조계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외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영문으로 제작한 로터스랜턴과 불교신문을 해외 사찰에



발송 보급하고, 국제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실무위원 통·번역진을 구성한 것도 중요한 발전이다. 특히 조계종 국제사이트 접속률이 한해 월 평균 5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괄목할 성장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사업은 국제 네트워크 강화이다. 국제 분야 사업과 해외 사찰 소식, 국제구호 소식을 신문 형식으로 만든 국제불교 소식지 '세계일화'를 3,000부 발간하여 관련 단체나 종단의 소임자, 국제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께 발송하여 종단의 국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끝으로 2014년 주요 국제 행사로는 해

외주요인사 연등축제 초청, 한중 선수행 체험단 중국방문,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불교계 인사 초빙 등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기타 인건을 가지고 열린 토론을 벌여 새해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 자리에서 사회부장 보화스님은 "해외포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해외 사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회의 결과가 정책입안으로 이어져 더욱 더 발전하는 한국불교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 편집부

# 세계불교 허브 '동국불교센터' 건립

## 동국대 '불교대학 비전 2020' 어떤 내용 담겼나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정승석)이 '비전 2020 선포식'을 개최하고 힘찬 도약을 발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은 지난 11월 26일 서울 엠배서더 호텔에서 비전 선포식 및 동문 행사를 개최하고 '동국불교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이 1억원, 석림동문회 사무총장 장적스님이 3,000만 원 등 스님과 동문이 기부금을 보시하여 모두 10억여 원의 발전기금이 모였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 즈음해 발표된 동국대 '불교대학 비전 2020'은 세계불교학의 허브가 될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불교학의 선진화 △한국불교의 세계화 △불교의 사회적 소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비전 2020'에 따르면 불교학의 선진화를 위해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해 활성화하고 인문·사회·자연계 융합교과 개발, 산학협력교과 개발 및 확장, 전공별 연구소 개설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을 세계불교학 연구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 불교중심대학들과 교류 확장, 복수 학위제 추진, 불교영문저널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불교대학원 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신진 연구 인력의 해외 연수 지원 등 한국불교를 영미권에서 포교할 수 있는 인재발사 방안도 포함됐다.

불교의 사회적 소통을 위해 불교문화 콘

텐츠 개발과 보존을 서두르고 콘텐츠 전산화와 사찰 등을 지원할 불교종합정보센터 운영과 평생교육개념 도입을 통한 일반인 교육 강화, 불교 투어 등 불교신행 프로그램, 불교사회복지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동국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은 비전 선포 후 첫해인 2014년에는 개교 108주년 기념사업으로 크스님 서화전을 열고, 해외대학들과 MOU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창립 50주년을 맞는 석림회와 인도철학회 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기부자 108명을 모아 '동국불교센터 건립 추진 108인단'도 구성키로 했다.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의 이 같은 변화 움직임에 대해 이사장 정련스님은 비전 선포식에서 "동국 역사의 중추인 불교대학이 새로이 용비를 선언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동국대와 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 중인 동문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옥 총장도 "동국의 동국다움은 시대의 흐름을 잘 살피 불교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연구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불교학의 선진화, 한국불교의 세계화, 불교의 사회적 소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세계불교학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스님, 일본 하나조노대학서 간화선 특별강연

해외불교 중심지와 교류하며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전파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의 선원장 수불스님은 2012년 봄 일본 도쿄의 다이쇼대학을 방문하여 간화선 강연과 실참을 시연한데 이어, 2013년 11월 23일 교토에서 선종 대학인 하나조노대학을 방문하여 '간화선의 탐구'란 주제로 강연과 간화선 실참을 시연하였다.

일본 선종 종파로 조동종에 이어 규모가 큰 임제종의 묘심사파(妙心寺派)에서 설립한 142년 역사의 하나조노대학에서 국제선학세미나가 열렸으며, 수불스님은 이 세미나의 특별프로그램에 초청되어 강연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한국 불교계에서 온 선사(禪師)에 관심을 가진 100여 명의 일본 불자와 일반인, 교수,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간화선의 요체와 수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경청한 후, 10여 명이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일본 교계 신문사 '중의일보'에서도 취재하였다.

일본 청중들의 질문은 간화선의 핵심인 화두의심의 효과, 깨달음의 도리는 무엇인가, 한국 재가불자들의 수행문화, 생활 속

▼ 강연 후 기념 촬영



수행방법, 재가자는 어떻게 계를 지켜야 하는가, 한국불교의 종단구성, 선지식의 점검문화 등 수행방법과 수행문화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스님과의 대화에 만족한 듯 강연 후 기념촬영에 많은 청중이 몰렸다.

방문 중 수불스님은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인쇄한 『선문촬요』(경허스님저) 인경본을 호소가와 총장에게 전달하였고, 불교학과 요시다 스님의 안내로 묘심사를 방문하여 선방 '금모굴(金毛窟)', 발, 생활공간 등을 돌아보며 일본스님들의 수행처를 가까이서 볼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두 대학은 선 수행과 선 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과 교류를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클. 동국대 국제선센터 김영수 과장



정승석 불교대학·불교대학원장은 "세계불교 중심이 될 '동국불교센터'는 부처님 가족이라는 불연(佛緣)의 원력으로 건립된다"며 "동국불교센터' 건립 계획을 밝히

고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의 비전이 곧 한국불교의 비전이다. 이 비전은 '동국불교센터' 건립과 동시에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불교신문

## 사)영화로세상을아름답게, 러시아 기독교영화제 개막작 상영 화제

사단법인 영화로세상을아름답게 이사장 대해스님의 영화 '소크라테스의 유언'이 지난 11월18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성 알렉산더 네브스키 대수도원 일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독교영화제 '기도의 종소리(Nevsky Blagovest)'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돼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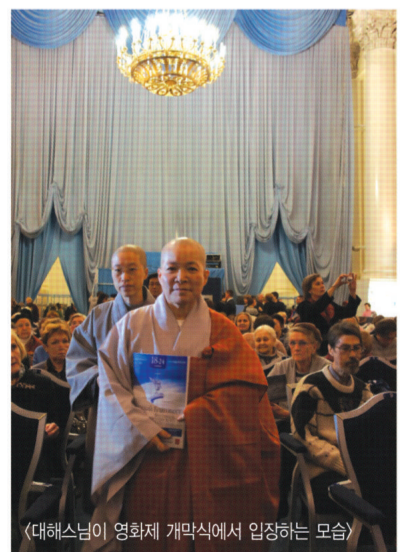
상영시간 21분인 이 작품은 풀리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유언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소크라테스의 유언에 관한 토론을 통해 영혼은 소멸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혼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과 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독약도 웃을 빨리 벗게 하는 약이며, 죽고 사는 것은 하나의 웃을 벗는 과정임을 이해함으로써 그가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를 알게 된다. 대해스님은 "소크라테스의 유언에 숨겨진 메시지를 통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뇌와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서 "더불어 사람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기독교와 관련된 영화에 한해 참가할 수 있는 이 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수백여 편이 출품됐으며, 기독교계 대표들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70여 편의 영화가 엄선했다. 기독교 성직자, 관계자가 아닌 스님이 영화를 출품한 것은 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세계단편영화제에서 금상을 받은 이 작품은 지난 5월 러시아 '제55회 백야영화제'에서 상영돼 호평을 얻었다. 당시 영화제에 참석했던 러시아 영화제작자가 스님의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고 직접 러시아 배우를 섭외해 러시아어로 더빙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러시아에서 열리는 기독교영화제에 스님의 영화를 추천, 영화 조직위원회에서 국민 끝에 상영을 결정했다.

"2006년부터 영상시대에 맞춰 세상의 본질을 알리는 방편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다."는 대해스님은 이듬해 첫 작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제1회 서울세계단편영화제 대상을 받았다. 이후 '본질의 시나리오', '무엇이 진짜 나인가?', '이해가 되어야 삶이 빠진다', '대광광불 논리회로', '부동심' 등 그동안 76편의 영화를 만들어 UNICA 세계영화제, 영국 BIAFF 국제영화제, 오스트리아 에벤세 국제영화제 등 세계 각국에서 열린 영화제에서 31차례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 러시아와 합작영화에 대한 협약을 맺는 한편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해스님이 영화제 개막식에서 입장하는 모습)

# 100명의 네팔 어린이 학자금 후원하고 있는 자비공덕회

2009년 6월, 북한산 자락 수유리의 한 조그만 암자에서 명조, 지상 두 비구니 스님과 10여 명의 신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위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한국자비공덕회를 시작했다. 매월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에 향운사 법당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법회를 열며, 보시금을 모아보니 매월 20여만 원 정도가 모였다. 회원들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 돈을 모아줄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즉시 사용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네팔의 어린이들 위해 후원

회원들은 작은 보시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대상을 찾던 중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 네팔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자금을 후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네팔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싶으나 한 달에 1,000 루피(1만5000원 상당)의 생활비가 없어 초등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다. 가정의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운 탓에 네팔 어린이들은 돌을 깨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팔 어린이들의 사정을 알게 된 자비공덕회 회원들은 2010년 새 학기부터 최초 12명의 어린이를 선정하여 12년간 매월 1,000루피의 학자금을 후원하기로 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후원보다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본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자비공덕회에서 후원을 받는 네팔 어린이들은 네팔 동부 끝 칸젠중가 기슭 자파코하바라(Jhpa Kohabara)오지에 위치한 버드러컬리학교 인근 마을에 있는 가난한 아이

들이다. 지난해에는 중풍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두 누이를 돌보며 학교에 다니는 소년 가장 사빈이의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수리해주기도 했다. 사빈이는 매일 12km를 2시간 동안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데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자비공덕회는 보시금이 늘어나는 대로 후원 학생 수를 매년 늘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늘어난 후원학생 수가 지난 12월 현재 초·중고등학생 70명, 전문대학생 30명으로 1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 미래 교육위해 컴퓨터 모금 운동도 전개

지난 2010년 10월 자비공덕회는 컴퓨터 10대를 모금하여 회원 20여 명이 불교성지순례를 하던 길에 이 학교를 방문하여 기증한 바 있다. 컴퓨터가 단 한 대도 없었던 학교 측에서는 허름한 창고를 개조하여 자비공덕회에서 기증한 10대의 컴퓨터로 컴퓨터 교실을 열고 있다. 그러나 버드러컬리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1,000여 명이 넘는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학생들의 가장 큰 소원이 컴퓨터를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는 것이라는 것.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자비공덕회에서는 30여 대의 컴퓨터를 목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내년 말경 네팔 현지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자비공덕회 회장 명조스님은 지금도 심부전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으며, 북한산 자락에 조그마한 토굴에서 생활하고 있다. 불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원활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스님과 자비공덕회 회원들은 매일 남을 위해 기도를 하며 모은 작은 성금으로 네팔의 가난한 어린이들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명조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비 실천행으로 더 많은 네팔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비공덕회 www.kjb.or.kr

- ① 후원을 받고 있는 버드러컬리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
- ② 넓은 창고를 이용한 컴퓨터 교실
- ③ 사빈 학생의 집수리 후 모습



## 사)위드아시아, 우리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480시간

### 캄보디아 뿌레이프랑 마을 'Dream나래' 센터에서의 6박 8일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위드아시아 해외봉사단과 함께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안전행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뿌레이프랑(卍) 뿌레이프랑 마을의 'Dream나래' 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위드아시아 해외봉사단은 동요가 없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꿈 세 마리'와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챙이와 개구리'와 같은 한국동요와 'BINGO' 등의 영어동요



를 율동과 함께 가르쳐주었으며, 고무동력기 날리기와 물 로켓 발사 등 과학 수업과 배구, 축구 등의 체육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해외 봉사 기간에 'Dream나래 어린이 운동회'를 개최하여 캄보디아 아이들이 해보지 못했던 짝꿍과 함께 풍선 터트리기, 장애물 달리기, 줄다리기 등을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박 8일 동안 캄보디아 뿌레이프랑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봉사단원들은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살짝 다가와 잡아주던 손, 속스러워하면서도 우리를 보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예쁜 미소를 짓던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순간순간 떠올라 다시 아이들 곁으로 가고 싶다.” 혹은, “첫 해외봉사라서 많이 설렌 만큼 걱정되었지만 돌아와보니 내 삶의 행복함과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는 소감들을 전했다.

후원문의: 법인사무국 051-322-7902  
서울사무국 02-3444-8007

##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 '조용한 책' 캠페인 진행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에서 지난 10월부터 후원과 봉사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조용한 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조용한 책'은 종이책이 아닌 펠트로 제작되어 소리가 나지 않는 책이라 붙여진 이름임과 동시에 글씨가 없어 책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엄마와 할머니가 만들어 선물하는 것으로 기억력, 감각, 이야기 짓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더프라이스에서 제작 기획한 '조용한 책'은 "Dream a little Dream"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을 인형 놀이 형식으로 엮었다.

'조용한 책'은 언어를 생략함으로써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아이가 볼 수 있으며 우주인, 요리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8개의 직업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또한, 국내 후원자가 키트를 구매함으로써 후원참여를 할 수 있으며, 온 가족이 직접 만들고 메시지를 작성해 현지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업과 개인에게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 후원자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신한호텔, 삼성SDI, 삼성물산, 국민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우수한 기업들이 단체 봉사활동으로 참여했다.

더프라이스는 '조용한 책' 캠페인 외에도 동티모르 여성과 여학생을 위한 파우치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며, 후원 참여 봉사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조용한 책' 캠페인은 1키트 당 3만 원(봉사시간 4시간)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미얀마와 동티모르 교육 사업에 쓰인다. 완성된 동화책은 선별하여 현지 어린이들에게 더프라이스 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현지 사진은 홈페이지에 실린다.

참여방법 문의 070-7596-9988  
www.thepromise.or.kr

# 미 남가주, 노숙자들에게 침낭 보시하며 자비 실천



12월 24일 지구촌 공생회 미국지부와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가 불우이웃돕기의 하나로 연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위해서 침낭 100개를 선물했다.

지구촌 공생회 미국지부 지부장 현철스님(반야사 주지),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회장 묘경스님(고려사 주지), 달마사 자광스님 등 3명의 스님과 황경권(지구촌 공생회 미국지부,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사무국장), 문월봉(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총무), 김병세(거사가 차량 2대를 이용하여, LA지역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맥아더 공원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침낭을 나눠주며 울겨올 때 뜻하게 보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어김없이 거리에는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다. 우리 일행이 거리와 공원을 찾은 시각은 새벽 3시, 추위에 벌벌 떨며 잠을 설치고 있던 사람들은

침낭을 받고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좋아했다. 침낭을 나눠주기 위해 불교계 스님들이 나왔다고 하자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마워했다. 매년 노숙자를 위해 집과 침낭, 양말, 모자 등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보다 많은 단체나 사람이 모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도움이 될 듯하다.

현철스님은 “노숙자들이 혼자씩 있는 것보다 몇 명 모여서 자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덜 추울 것 같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묘경스님도 “밖에서 노숙해본 사람은 추위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아픔을 안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뜻한 봄날이 오기까지 추위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침낭은 부처님의 포근한 보금자리 같을 것이다.

글\_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

## 캘리포니아 태고사, 형전스님 주지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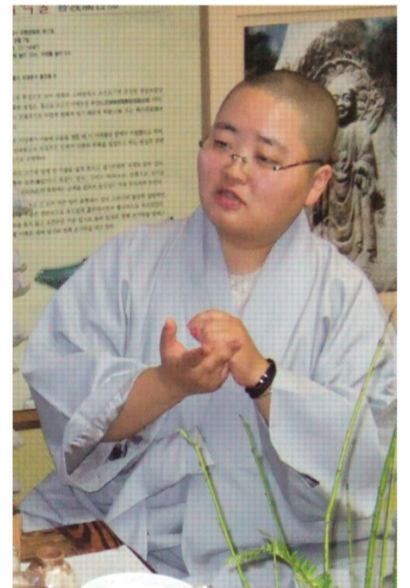
지난 12월 10일 캘리포니아 태고사에 형전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았다. 2004년 미국으로 건너와 육조사 주지, 2006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보리사 창건과 함께 주지로서 북가주 연합 어린이 청소년 연합과 청년 연합회를 만들고 이끌어왔다. 또한, 태고사에 오기 전까지 정원사 총무와 어린이 법사 소임을 맡기도 했다.

스님은 15일 태고사에서 첫 법회를 보면서 “2005년 육조사 주지로 있을 때 신도들과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들렀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태고사였다. 미국에 한국식 사찰이 저녁 무렵 석양을 받고 있는 모습은 가슴 속 깊이 인상을 남겼다. 그렇게 맺은 인연이라 매년 1~2번 정도 태고사를 방문하곤 했다. 보리사 주지를 맡고 얼마 되지 않은 2007년에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가족이 있어 함께 와서 철야기도를 했다. 이 보살님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얻은 것이다. 이는 태고사 산신님 기도 영험이라고 생각한다. 꼭 9년 전인 2004년 12월 15일에 미국에 왔는데, 9주년을

기념하며 태고사 주지로서 첫 법회를 하게 되었음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다.”며 인연과 함께 소감을 밝혔다.

북가주에서의 9년 세월 동안 익숙해진 곳을 떠나 새롭게 태고사 소임을 맡게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원을 하며 끝을 맺었다.

캘리포니아 태고사 +1-661-822-7776



## 꿈을 향한 나래 짓,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 참가기

안녕하세요! 저는 박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1 올라가고,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3회 한미불교문화연수단에 참가하여 열흘 여행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쓰려고 합니다.

제2회 한미불교문화연수단도 참가하여 2012년 겨울 미국 서부에 다녀왔죠. 사전조사 없이 갔다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좀 했는데 덕분에 여행할 때 “아! 저거!” 하면서 관심 있게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12월 23일에 출발했는데 뉴욕에 도착하니 23일이 막 시작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UN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만난 것인데요. 그때 마침 ‘한국 신라 특별 전시’를 하고 있어서 스님께서도 거기에 꼭 가보라 하셔서 저희도 가게 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워낙 커서 제가 속한 조는 한참을 헤매다가 그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총장님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하고 사진도 찍지 못했지만, 세계를 돌아다니시느라 바쁜신 사무총장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자마자 이렇게 큰 행

운을 맛보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열흘간의 일정이 매우 길어서 자세히, 길게 쓸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하루를 적으려고 합니다.

바로 여행 일주일째 날 일정 중 하나인 뉴욕 맨해튼 자유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정 중 하나였지요. 이날은 조끼리 다니는 것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행과 다른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때 스님이 세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애플 본사 앞에서 사진 찍기, 뉴욕 세인트 패트릭 성당 앞에서 사진 찍기, 미국 공립 도서관 안에서 사진 찍기 등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뉴욕에 있는 불광선원 청년법회 언니들이 안내해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도 스테이크를 먹고, 쇼핑하는 등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 일정을 가졌는데 그래서 솔직히 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미술전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 여러 미술관, 박물관들이 많아서 “자유 시간 때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인 뉴욕 현대 미술관을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스님께 부탁을 해 따로 미술관에 가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여러 작품을 보게 되어서 매우 인상적이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이 내주신 세 가지 미션

들은 다 수행했고, 그밖에 다른 곳들도 둘러보았기 때문에 매우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불광선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교유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단이 여행 중 틈틈이 연습한 장기자랑도 하고, 댄스파티도 하는 등 매우 즐겁게 지냈는데요.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처도 교환하여 카톡도 하고 SMS도 같이 하는 등 많이 친해져서 좋았습니다.

열흘 동안 알차게 미국여행을 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는 등 여행은 100% 만족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엔 서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로써 미국 동서부를 다 여행했습니다. 미국 동서부를 다 여행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 여행을 다른 사람한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연수를 같이 갔다 온 친구들아! 보고 싶고 앞으로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자유 시간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우리 말 안 듣는 연수단을 이끄시느라 고생하신 정범스님과 성화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글\_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원 박의진

# 미 북가주, 제7회 북가주 불자 연합 송년의 밤 개최

제7회 북가주 불자 연합 송년의 밤 행사가 11월 24일(일) 저녁 쿠퍼티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북가주의 여러 지역에서 불자 가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올해 행사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친교 시간, 법회 및 공양, 놀이마당 순서로 펼쳐졌다.

오래간만에 만난 불자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정담을 나누는 제1부 친교 시간이 끝난 뒤 이어진 제2부 법회 및 공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송년의 밤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상운 거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송 뒤 저녁공양에 앞서 한동만 주(駐)샌프란시스코총영사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에 관해 설명하며 불자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한 총영사는 여래사(주지 소원스님, 삼보사(주지 대만스님), 자비봉사회(회장 김영재) 등 기념비 모금 운동에 앞장서 동참한 사찰들과 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또 김영자 회장과 법회 통역을 맡는 이임성 회장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했다.

저녁공양은 올해 역시 불자들의 십시일반 후원과 정성 어린 봉사로 300명분이 준비됐다. 공양이 이어지는 동안 무대 화면에는 2006년 송년의 밤 등 추억어린 사진들



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제3부 놀이마당은 안정열 사회자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선남선녀 젊은 불자 모임인 '타라TARA' 회장을 맡고 있는 안 사회자는 익살과 재담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사찰이나 재가단체 간의 장기자랑으로 진행된 송년의 밤 놀이마당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 제기차기, 파트너와 몸을 비벼 풍선 터뜨리기 등 갖가지 게임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초청악사와 댄서들의 공연이 사이사이 이어졌다. 써니 배씨의 춤바덴스 때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신명을 풀었다. 삶의 고단함을 잊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출처: LA중앙일보



## LA 달마사, 송산스님 9주기 추모법회 주최

LA 달마사에서는 11월 17일 송산 스님의 9주기 추모법회를 가졌다. 달마사 자광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송산스님의 LA선원인 달마선원의 풀 박 지도법사와 진관스님을 비롯하여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불교 연합 합창단의 추모노래와 함께 스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산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상스님은 이날 영어로 법문을 전했다. 무상스님은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저기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은 서로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생각이 끊어지고 모든 것을 비울 때 너와 내가 옳음이 없게 되고 더는 다툼이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며 한 일화를 전했다.

큰 스님이 병이 들어 병원에 갔는데 진료 후 의사가 병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이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생각이 끊어진 상태이신 스님은 병의 고통을 의식하기는커녕 아이처럼 웃으실 뿐이었다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로워진다. 쉽게 얻어지지 않지만 계속 마음 비우는 공부를 계속 해야 할 이유"라고 법문했다. LA 달마사 +1-323-735-1911

## 서울 화계사, 옹호바야르 몽골 前 대통령 방문

2006년 만해대상 포교부문 수상자인 남바린 옹호바야르 몽골 전 대통령이 한국과 몽골의 불교문화 교류 방안의 하나로 대표적인 불교경전인 금강경을 몽골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포교의 중심 사찰인 서울의 고찰 화계사를 찾았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몽골어 번역을 추진하고 있는 옹호바야르 전 대통령은 12월 4일 화계사에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과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으로부터 경전번역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통역은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지정스님이 맡았다.

옹호바야르 전 대통령은 "국민의 90%가 티베트 불교 즉 라마교를 믿고 있는 몽골이지만, 경전은 티베트어나 고대 몽골어로 쓰여 있어 일반인들은 읽지 못한다."며 "대승

불교의 핵심경전인 금강경을 현대 몽골어로 옮겨 보다 많은 국민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은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신념으로 멀리 한국 땅까지 찾아온 의지가 대단하다."며 "불교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보살이 되라."고 격려했다.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역시 "현재 몽골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강경의 몽골어 번역이 부처님을 단순히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삶을 이해하는 수행 중심의 불교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교류를 통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계사 02-902-2663

▼ 왼쪽 두 번째부터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지정스님, 교육원 연수국장 진광스님, 옹호바야르 몽골 전 대통령,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 뉴욕불광선원 부주지 헤민스님, 뉴저지주 마돈나성당에서 행복 콘서트 열어

고단한 이민생활에 지친 1,000여 명의 한인들에게 모처럼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12월 23일 뉴저지주 마돈나성당(주임 이경신부)에서 열린 행복 콘서트 행사에서 '힐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헤민스님은 행복에 대해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의 행복은 물론이고 주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헤민스님이 내린 답이다.

UC버클리, 하버드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대학교 등에서 차례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헤민스님은 한인 최초의 스님 교수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현재 뉴욕불광선원 부주지이자 미국 햄프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헤민스님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국민의 멘토', '힐링의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다.

이날 그는 다른 이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을 행복의 첫째 덕목으로 꼽았다.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주면 자신의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다른 이들도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헤민스님은 지도 학생들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도 힘들 때가 많지만, 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

니 마음이 넓어진다."면서 "내가 잘 될 때 학생들이 더욱 기뻐하는 것을 보면 더욱 행복하다. 내가 베풀수록 내가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타인들이 늘어 자연스럽게 나의 성공이 오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운함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이들이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서운함이 생기지만 정작 이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면 불화만 생긴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주는 것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민스님은 "나는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고 말했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중앙장 의사 하봉호 대표가 자살방지 등을 위해 설립한 '하늘가족 사랑재단'의 주최로, 제5차 자살방지 세미나의 하나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한인이 찾아 예배당을 가득히 메웠다. 이들은 강연과 함께 헤민스님이 인도하는 자기치유 명상 등을 하며 행복의 의미를 되돌아봤다. 출처: 뉴욕 중앙일보

# 잭 콘필드가 말하는 ‘나 자신을 위한 자비 명상법’

자기 자신을 자비 수행의 대상으로 삼기는 힘들다. 스스로 자신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행동이 이기적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혼자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무의식적 저항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자비 명상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서부터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비심을 보내기 가장 쉬운 대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어려운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는다. 자신이 삶의 신비로움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낀다. 부처님이 하신대로, 천상도, 지상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자신을 둔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자신의 몸과 호흡을 느낀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그 사람을 위한 축원을 마음속에 떠올

린다. 부디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부디 건강하기를, 부디 행복하기를.

다시 당신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그를 향해 같은 축원을 보낸다.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의 자비심을 보내는 것을 상상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축원을 보낼 때 어떤 표정으로 당신을 보는지 그려본다. 그들이 당신을 향해 말한다, 당신도 또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부디 건강하기를 그리고 또 진정 행복하기를.

그들의 축원을 받아서 당신 자신에게 보낸다.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진정 행복하기를. 이때 가슴이나 다른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다. 가슴에 축원을 가득 채운 채 눈을 떠 방을 돌아보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자비심을 보낸다. 자비심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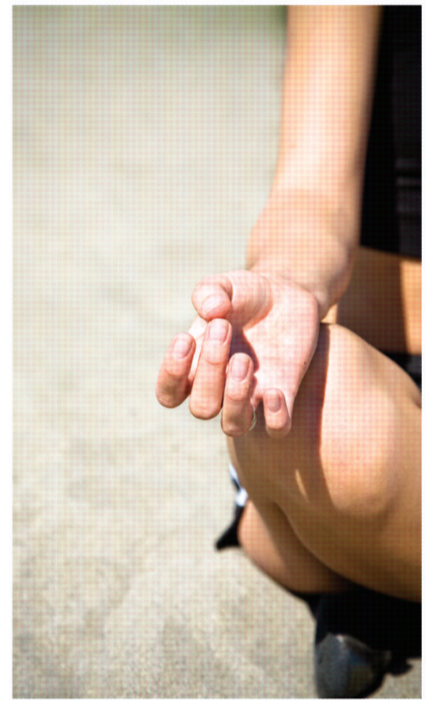
이제 자신을 햇불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

비의 빛이 당신이 사는 도시와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심지어 저 먼 우주까지 퍼져 나간다. 멀리 떨어진 가까이 있는, 어린이나 나이 든 이나, 시방 삼세 어느 곳에 있거나 모든 사물, 모든 존재가 커다란 자비의 빛 안에 들기를 축원한다.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부처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비와 자유로 충만한 마음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스스로 자신을 일깨워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혜택을 누리기를.

Jack Kornfield, Shambhala Sun [2014. 1]

▶ 잭 콘필드 - 작가이자 심리학자. 불교의 명상수행법을 서양에 소개함. 태국의 아잔 차 스님,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 스님에게서 위파사나를 배운 후 미국에서 위파사나 명상회를 공동 설립하고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음.



## 빈곤, 차별 퇴치 위한 ‘국경없는 승려회’ 발족

교토, 일본 - 국적과 관계없이 전쟁이나 재난 지역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국경없는 의사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국경없는 기자들’에 이어 ‘국경없는 승려회(Monks without Borders)’가 일본 교토에서 출범했다. 목표는 세계의 종파를 초월해 모든 불교인을 결집하여 빈곤 퇴치, 차별 철폐 등과 같은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불교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파의 사람들과는 별로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교를 통해 인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우리도 어디든 가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직의 구성을 주도한 교토 조코지사(寺)의 주지 나카지마 스님의 말이다. 조직 단계에서 이미 인도, 대만, 베트남 승려들의 지지를 얻어낸 이 기구는 이 활동을 통해 신도수의 격감, 재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불교는 현재 스님들이 운영하는 카페일 바나 사찰에서 열리는 패션쇼 등 여러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새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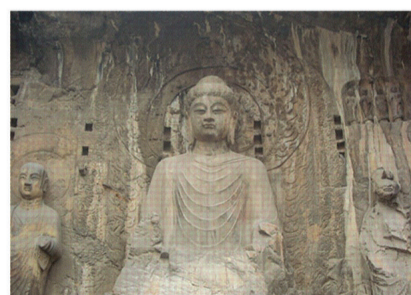
“스님들은 병원으로 위문을 간다거나 자연재해 지역의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활동 등에는 적극적이지만 공적인 활동에는 잘 나서려 하지 않죠.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 개설 등을 통해 대중과의 연락망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John Hofilena, Japan Daily Press [2013. 12. 17]

## 중국 남북조시대에 건립된 사찰 발견

북경, 중국 - 1400년 전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에 북부의 기국(紀國, 550-557년)의 통치 시기에 지어진 오래된 사찰이 산시성(山西省)에서 발견되었다. 이 암자는 벽감이 새겨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시성의 수도인 타이위안(太原) 인근의 산 위에 위치한 통지사(通志寺)에 속해 있다. 특히 벽감에 새겨진 조각들은 초기 불교 미술에 새로운 정보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기 556년에 세워진 이 사찰은 이와 같은 구조의 사찰로서는 중국 최초의 건물인데 1117년 전쟁 중에 파괴되었으나 조각물들은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다. 한 벽면에는 높이 20m가 넘는 부처상이 조각되어



있다. 잘 알아볼 수는 없으나 조각물의 파편들이 발견됨으로써 원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나라(618-907년) 시기에 그려진 약 2.6m 길이의 벽화도 볼 수 있는데 유물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PTI [2013. 12. 8]

##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드디어 첫 삽을 뜨다

쿠시나가르, 인도 - 대승불교전통유지재단(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이 추진하는 마이트레야 프로젝트가 15년간의 계획과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작년 12월 13일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르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우파 프라데쉬주(州)의 주지사(州)와 재단의 영적 지도자인 라마 조빠 린포체가 주재한 식전에서 257에이커에 해당하는 부지



의 기증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으며 이곳에 앞으로 미래 보살로 세상에 오실 마이트레야, 즉 미륵보살을 경배하기 위한 시설들이 건립될 것이다. 기공식에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청중이 참여해 이 유례없는 계획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는 원래 보드가야에 500피트 높이의 미륵보살상을 세우기로 계획했었으나 용지 확보 과정에서 농부들의 이주 문제에 부딪힘으로써 몇 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부처상의 높이는 150피트로 축소되었다.

현재 이 거대한 부처상의 심장에 안치될 부처님 진신사리 유물이 전 세계를 돌며 순례전시회를 갖고 있다.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www.maitreya-project.org](http://www.maitreya-project.org)  
Buddhadharma [2013. 12. 13]

## 독일 오베른도르프의 시장, 승려가 되다

오베른도르프, 독일 - 14년 넘게 재임하고 있던 헤르만 아카르 시장은 불교 공부를 위해 자주 스리랑카를 방문하던 친구로부터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난 8월 친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그는 결혼식 축원을 위해 스리랑카에서 온 미힌테일 라자 마하 비하라야의 원장인 다르 마라트나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두 사람은 불교에 대해 오랜 시간 얘기했다. 그는 스님에게 자신이 스리랑카에서 승려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원에서 승려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감히 여쭙보았고 다행히도 종단에서 저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는 수계식에서 머리를 모두 깎고 다른

승려가 입었던 승복을 받았다. 이제 그는 라사나시리 스님으로 불리며 수도원에서 엄격한 수행생활을 하고 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명상, 염불, 간경, 종교적 토론 등으로 이어지는 매일 매일의 일과에 성실히 참여한다.

“스리랑카, 특히 이곳 미힌테일 수도원에 있는 것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불교를 수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그의 진지한 수행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독일로 돌아가게 되면 시장직을 계속할 것인지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금 그는 불교에 대한 지식과 수행 생활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 다르마라트나 스님은 말한다.  
BBN [2014. 1. 5]

### 남아공의 거대한 불교 사찰 난 우아 사원

**브론크호스트스프루잇, 남아공** - 남아공 고텡 주(州)의 작은 마을 브론크호스트스프루잇에 자리한 난 우아(Nan Wua) 사원은 남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교 사찰이다. 사찰은 1992년에 건립되었는데 이때는 2년 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된 이후 인종분리 정책(아파트헤드Apartheid)가 붕괴하기 직전이고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카민족의 회(African National Congress)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있었다.



경비는 대만의 호광산 본부와 남아공에 거주하는 대만 교포사회에서 제공했다.

사원 건설의 주역은 시의회 의원이었던 헤니 세네칼 박사였다. 1991년 투자를 위해 대만을 방문했던 그는 정토회에 속한 호광산(Fo Guang Shan) 종(宗)에 매혹되어 남아공에 사원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의 발의로 부지를 기증해서 1992년 10월 공사가 시작, 법당과 선 명상센터를 포함한 건물들이 세워졌다.

사실 처음에는 우려도 컸다. 그 지역이 아직 보수 백인들의 인종분리정책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던 지역이어서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나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음으로써 남아공의 새로운 다문화사회의 주요 상징이 되었다. (2002년 10월 백인 인종주의 민병대가 사원의 건물에 폭탄을 장차해 두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것이 유일한 사건이었다)

총 6백만 달러가 소요된 이 사업은 지역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약 95%의 자재를 지역에서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흑인의 실업률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사원 건설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기 때문이다. 모든

이후 호광산은 요하네스버그, 더반, 케이프타운 등에도 사원을 건립해서 아프리카의 불교도들에게 수행처를 제공하고 있다.

Lenny FlankFollow, Daily Kos [2014. 1. 4]

### 다큐멘터리 '사진 찍는 스님', 팜 스프링 국제영화제 수상 후보에 올라

**팜 스프링, 미국** - 기록영화 '사진 찍는 스님(Monk with a Camera)'이 팜 스프링국제영화제의 경계 허물기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뉴욕 사교계의 명사이면서 사진작가였던 젊은 니콜라스 브리랜드가 승려가 되어 마침내는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달라이 라마에 의해 티베트 불교 사찰의 주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이 영화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데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선정되기 위해 다른 다

섯 작품과 경쟁하고 있다. 영화는 뉴욕의 저명한 패션 편집자인 다이애나 브리랜드의 손자인 주인공이 화려한 상류 세계를 떠나 히말라야의 사찰에서 고승 콩라 린포체의 지도로 수행하는 과정, 라토 사원을 복원하려는 열성, 그리고 마침내 주지로 임명받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제작자는 이 영화를 "수도 생활에 관한, 티베트 사회의 미래에 대한, 미국 사회에 미치는 불교의 영향력에 대한, 그리고 무상한 세계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표현했다.

이 영화는 작년 11월에 유럽에서 상연되어 열렬한 반응을 얻기도 했다. 팜 스프링 국제영화제 주관 단체인 '국경없는 영화'는 1월 12일 시상식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uddhadharma [2014. 1. 8]

### 부다넷, 불교 전자도서관 서비스 출범

**시드니, 호주** -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호주의 인터넷 불교 웹사이트 부다넷(Buddhanet)이 불교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자도서관은 현재 영어, 중국어, 태국



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추후 더 많은 언어로 확장할 계획이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보디트리 포레스트 수도원에 자리한 부다넷 마하 교육협회, 마하출라롱군 국제 불교 대학, 그리고 부디스트 마하 비하라가 제휴했다. 앞으로 전 세계의 불교 기관들과 동반 관계를 구축해서 교육학을 기반으로 불법의 체계적 발전 및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운영의 유일한 원칙은 모든 불교전통과 불교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부다넷 www.buddhanet.net

Justin Whitaker, Patheos [2013. 12. 27]

### 소규모 그룹 스터디로 불교 다가가기

**배틀 크릭, 미국** - "사람들은 명상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깨닫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명상 수행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한 보험회사 건물의 지하에 자리 잡은 홀리스틱 건강센터에서 티베트 불교 스터디 모임을 이끌고 있는 매트 윌리스는 확신에 찬 어조로 명상이 주는 영향을 얘기한다. 그는 20년 이상 불교 수행을 해왔다. 2009년 자신의 집에서 불교 스터디그룹을 시작했고 2012년 홀리스틱 건강센터로 모임의 규모를 넓혔다.

"우리 모임은 일종의 북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은 매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각각 명상, 경전공부, 초보자들을 위한 명상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는 데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는 10대부터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

야 하는지 몰라 고민했다. 그러다 19살이 되어서 불교를 알게 되었다. 1990년 그는 불교에 귀의했고 불교 공부에 몰두했다. 세 차례 인도를 여행했으며 뉴욕 우드스톡에 있는 불교 사찰에서 두 번이나 여름 안거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2년 배틀 크릭으로 이주한 후 외부적인 불교 활동을 시작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티베트승려들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시카고, 에반스빌, 토론토, 심지어 서부의 시애틀에서까지 강연을 들으러 왔다.

그는 자신이 단지 수행자일 뿐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계속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느낍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의 평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일부터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 있으니까요."

그는 웃는다. "사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첸그룹스터디 www.palchenbattlecreek.org Battle Creek Enquirer [2013. 12. 17]



### 명상의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한 첫 과학적인 증거

**위스콘신, 미국** - 집중적인 마음 챙김 mindfulness 수행 후 신체의 특정한 분자들에 변화가 있었다는 첫 증거가 보고되었다. 위스콘신-매디슨대학 연구팀은 명상 수행자들로 구성된 실험 그룹에는 하루 8시간 집중적인 수행을 하도록 했고 다른 일반인 그룹에게는 명상이 아닌 조용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 8시간 후 명상 팀에 속한 참가자들에게서는 염증 유발 유전자들이 감소했고 이 결과 스트레스에서 더 빨리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집중적인 마음 챙김 명상수행이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과학적 증거이다.

방 대책으로 입증 받는데 이어 이번 연구는 더 나아가 명상이 실제로 유전자 분자의 변화를 일으켜 병의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를 얻게 된 것이다.

기존의 임상적 연구를 통해 명상 수행이 염증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왔고 미국 심장협회에 의해 심장질환의 예

수행팀의 피실험자들은 수행과정 동안 다른 팀이 경험하지 못한 유전적 변화를 경험했는데 이는 명상수행이 게놈(세포나 생명체의 유전자 총체)에 유전자 외적 요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만성 염증 질환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의 발현은 매우 역동적이며 이 연구의 결과는 마음의 평정이 실제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Jill Sakai, Univ of Wisconsin [2013. 12. 4]



# ‘이주노동자와 함께한 따뜻한 겨울나기’ 위안 행사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스님)은 12월 22일(월) 구미 마하이주민센터에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한 따뜻한 겨울나기’ 위안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13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심학봉 국회의원과 구미시 노동복지과 배재영 과장 등 지역인사들이 방문하여 축사를 전했다. 연말을 맞이하여 특별히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차원에서 한국민요 배우기, 강강술래를 익혔으며,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나빌레라 무용단’의 공연과 한국가요 부르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국 출신 이주노동

자 장명준씨는 “최근 사업장 변경 때문에 잠시 쉼터를 이용하던 중 연말행사에 참여했는데 한국 전통 민요를 배울 수 있어 좋았고 특히 다국적으로 구성된 이주여성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며 다음에도 참석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주노동자 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사기를 증진하고 한국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폭력과 임금체납,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경북 구미에서 마하이주민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054-443-0755



##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비상대책위원회, 치타공 산악지역의 교육시설 지원으로 아름다운 회향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앞으로 2년간 방글라데시에 있는 학교 4곳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행한 우물지원 사업, 의료 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사업을 지원하는 치타공 산악지역은 방글라데시 내의 소수민족의 터전으로,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1%에 불과한 불교 신자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치타공 산악지역(Chittagong Hill Tracts)의 원주민의 경우, 정규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 지역에 학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비를 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역의 정규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4개 학교, 150여 명의 아이들에게 2년 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학교의 열악한 기숙사 시설을 수리 보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혜택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교육에 대한 부모와 학생들의 인식 개선,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012년 9월에 발생한 불교탄압사태에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이주민법당 보타사, 김포마하이주민센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재한 줌머인연대, 네팔법당 용수사, 스리 그리스너 문달(힌두사원), 스리랑카 마하비하라, 스리랑카독립협회, 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로터스월드 등이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해산하게 되며 앞으로 상설 기구인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종교평화를 위한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비상대책위원회 02-720-7095

##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진행

지난 12월 29일, 양주 스리랑카법당 마하보디사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마주협 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맡아주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교육을 평소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직접 법문을 방문하여 실시한 것이다. 교육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주와 근로자로 역할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등 직접 사업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과 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 이후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며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프라사나 씨는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오지만 실제 공장에 가면 내용이 다른 것이 많았다. 오늘 교육을



통해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마주협은 외국 법문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주협과 국제전법단은 ‘이주민을 위한 상담메뉴얼’을 제작하여 1월 중 전국 사찰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현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불교계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 외국인 스님 템플스테이 “한국 불교의 심지, 간화선을 만나다”

지난 12월 26~27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주최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으로 예산 수덕사에서 ‘외국인 스님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종단 초청으로 네팔·라트비아·러시아·미얀마·스리랑카·인도·체코·캄보디아·티베트 등에서 들어와 국내에 머물며 활동하는 스님 30여 명이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스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스님들은 한국불교의 간화선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큰 분들이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두어 분을 빼놓고는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입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스님, 수덕사 부주지 스님, 입승 스님, 연수국장 스님 등 많은 스님이 참석했다. “선불교의 요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모쪼록 깊이 있는 선체험을 하여 조금이라도 선맥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수덕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보다 이해할 수 있고, 수행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환영과 환대의 인사가 이어졌다.

외국인 스님 템플스테이의 주요 일정은 간화선 실습과 능인선원 방문이었다. 수덕사 입

승 성두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실습에 들어갔다. 성두스님은 “선은 단순하고 간단하다. 선은 숨 쉬는 공부”라고 정의하며 시작했다. 간화선 실습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성두스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간화선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애썼다. 그 열성만 기능하여도 간화선의 정신이 무엇인지 짐작될 정도였다.

이튿날은 정해사 능인선원을 방문하였다. 수덕사에서 정해사로 올라가는 산길은 도로로 40여 분 걸리며, 올라가는 도중 사면석불, 만공탑 참배를 했다. 스님들이 정해사에 도착했을 때는 때마침 선방 스님들이 좌선을 마친 시각이었다. 잠시 후 선방의 문은 닫히고 금세 고통해졌다. 그 침묵을 깨지 않기 위해 스님들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 글과 사진은 임유미 기자의 ‘템플스테이 블로그’ (<http://blog.naver.com/templestaygo>)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